

현장시선



고영림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언어학박사

제주도민에게는 햇수로 4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애초에는 한빛제주아트플랫폼 사업으로 등장했는데 언제부터인지 한빛플은 빠지고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문제다. 제주시 원도심 삼도이동에 있는 영화관을 제주문예재단이 출연기금 173억 원 중 100억 원 주고 매입한 후 아트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세금을 투입하는 이 사업이 왜 문제인지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무엇이 핵심이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기로 한다.

제주아트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우선이다

아트플랫폼이 필요한지 제주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영화관을 매입하고 역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했을 때 가성비는 효율적인가. 만일 아트플랫폼을 굳이 원도심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문화공간이 아니었던 공간, 비어있거나 낙후된 공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에 만들어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들을 보면 참고할 만한 사례들, 환형과 찬사를 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다. 타산지석의 지혜가 필요하다.

21세기의 플랫폼이란? 머물렀다 떠나는 곳이 플랫폼이고 따라서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 플랫폼에는 생산자만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있다. 그런데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누구인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떤 목적으로 가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매입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둔갑한 형상이다. 21세기의 플랫폼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에서 더 진보한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을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다. 온-오프 공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소비되는 플랫폼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대안은 무엇인가? 핵심은 소프트웨어다. 현재 한국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소프트웨어이며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에 목마르다. BTS 열풍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고 탄탄하게 준비되었을 때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상향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80년대식으로 건물 사고 리모델링해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다. 제주문예재단이 일방통행으로 폭주하는 열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이 사업에 플랫폼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도민은 없다.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하향식 추진을 멈추고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것이 대안이다.

제주문예재단이 법적 지위도 없는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밀실에서, 위원회 명단도 회의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영화관 건물 매입을 맡아붙어갔다고 하면 과연 도민이 환영할 것인가. 이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비판하면서 제주도민의 문화 담론이 성숙해지고 다양해졌음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의 섬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의 자부심을 깎아내리고 있는 제주문예재단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재검토하고 제주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장을 더 늦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 바늘 머리에 실 묶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이 사업으로 혼란을 빚은 것을 반성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사설

백신 접종 인원 당초 계획보다 더 늘려야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의 차질이 우려됐으나 예정대로 진행돼 다행이다. 다만 일부 백신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가라앉지 않아 계획대로 백신 접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26일부터 9곳 요양병원과 60곳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제주에는 3900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이 첫 배정됐다. 요양병원은 백신을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접종한다. 제주도는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10명 단위로 접종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이 끝나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1분기에 9819명을 접종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전담 병원 의료진 등이 맞을 화이자 백

신은 3월 중순쯤 제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18세 이상 57만5116명 중 집단면역 형성을 고려해 이중 70%인 40만 2580명을 오는 11월까지 접종할 계획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가 목표로 잡은 접종 대상보다 늘려야 한다. 알다시피 백신을 맞는다고 100% 예방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백신마다 예방효과는 다르지만 대체로 평균 80% 정도로 본다. 때문에 도내 인구의 70%가 항체를 가지려면 이보다 많은 사람이 접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안정적인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 인원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적어도 접종 인원을 85% 이상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제주도는 그냥 흘려들여선 안된다.

열린마당

아파트 경량칸막이를 아십니까



오봉근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부산 모 아파트 집에서 잠을 자다가 뜨거운 연기에 놀라 잠을 깬 이씨는 열린 아내를 깨우고 3살 딸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불은 출입문과 인접한 주방에서 내부로 번져 현관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일단 베란다로 피신했지만 밖은 아파트 7층 높이였다. 유독가스가 번지는 아찔한 상황에서 옆집 베란다 벽을 부수면 이웃집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번득 떠올렸다. 이씨는 석고보드로 만든 경량 칸막이 벽을 있는 힘껏 뚫고 옆집으로 들어가 가족의 목숨을 모두 구했다. 만약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몰랐거나 경량칸막이의 앞 공간에

수납장이나 그 외 물품으로 막아버렸다면 이씨 가족들은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발로 차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가구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이처럼 화재대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 및 이웃을 구할 수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 뿐만 아니라 화재시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 및 대피요령들을 평소 교육해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수리계 일관성·형평성 있는 정책 필요”

김용범의원 개선방안 주문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경남·중앙동·천지동)이 25일 농업·방목·중앙동·천지동)이 25일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리계 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성 등이 중점 제기.

김 의원은 이날 농수축경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양 행정수 수리계 조직이 452개나 되지만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비도 천차만별”이라며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문.

이어 “수리계에 조성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수리계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 고대리기자

소통의 날 운영 66건 접수

○...제주시가 지난 1월26일부터 2021년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민생현안 및 불편사항 관련 모두 66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고민.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교통, 쓰레기 문제를 비롯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망 구축, 침체된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성 등이 중점 제기.

이와관련 안동우 시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갈등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학생·교사가 만든 지역교과서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5명과 사회과 융합 동아리 '아고라' 학생 48명이 지난 1년간 융합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교과서 '양지바른 서귀포시'를 제작해 눈길.

교과서는 서귀포 지역의 다양한 자원 및 역사적 설화 등을 주제로 선정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으며, 사회 수업 부교재로 활용될 예정.

담당 교사는 “지역 교과서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주민 등이 참여해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 오은지기자

가파른 출생아 감소... '인구재앙'은 막아라

제주지역 인구가 사상 최저 출생아 수, 혼인건수를 기록하며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재앙'으로 치달을 태세다. 최근 인구감소 추이에다 역대 최저 출생아 수, 혼인건수 통계까지 더해지면서 인구정책 전환을 계속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나온다. 도내 상당수 읍면동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까지 직면한 상황에서 최악의 국면을 막기 위한 새 대안 마련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통계청의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작년 도내 출생아수는 3987명으로 전년 4500명보다 11.4% 줄었다. 20년전인 2000년 8633명과 비교하면 절반이상 줄었다. 혼인건수도 지난해 2981건 기록, 전년도 3358건에 비해 11.2% 줄었다. 이 역시 2000년 4022건에서 계속 감소하며 작년 3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사회

적적 과정을 밟아왔다. 최근 추자·한경면을 비롯한 도내 16개 읍면동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직면했다는 제주연구원의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우려를 더한다. 인구감소가 단순히 도민의 줄어듦을 떠나 지역을 소멸시키고, 제주의 미래를 재난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제주도가 이미 파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인구대책들로 일정 평가를 받았지만, 현 상황에선 재점검을 통해 새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단기 현금성 저출산 대책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주거문제 해결이나 아동투자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조성에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할 때다. '도민은 제주의 시작이고, 끝이다'는 인식이 예측불허의 '인구재앙'을 막을 수 있다. 도가 새롭게 파격적인 '제2의 인구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부고

김주남(롯데면세점 제주법인장) 병부 남양홍공 광수(향년 80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25일 01시 31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2월 27일(토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28일(일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장례식장 제3분향소
▶장 지: 애월읍 광령리 가족묘지
아 들 흥기돈 며느리 김남연
기상 김지은
딸 흥은경 사 위 김주남

※연락처 제주점 점 장 이종민 010-8934-3287 부점장 윤남호 010-3639-1130

부고

현향탁(前 제주도생활체육회장) 어머니 성주이씨 남례(향년 93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25일 13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2월 27일(토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28일(일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함덕제주장례식장 제3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대흘리 명당머루 승조원
아 들 현향탁 며느리 오영자
중탁 강명숙
삼탁 강미경
기탁
딸 현정자 사 위 김인필
정순 김용택
정애 고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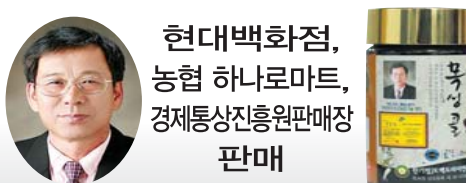
※연락처 현향탁 010-4045-8234 현중탁 010-2662-9894 현삼탁 010-9646-0852 함덕제주장례식장 727-444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원봉(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 아 들 고대연 며느리 윤미숙
사 위 서훈택
딸 고선유 경심(경중) 강창우
김석보
경 지

백도라지 분말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PK약백도라지연구소

재산상속 한정승인공고

성 명: 망 김군오(1941. 4. 1.생)
최후주소: 서귀포시 중동로 14번길 4-8(서귀동)
상기자는 2015년 11월 23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2월 23일 제주지방법원 2020년단1026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